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엡 2:20)

충현교회 70년사 배부

일시: 10월 1일, 8일(주일)

1부 예배 후~교구모임 전

10월 6일(금) 금요일집회 후

장소: 코이노니아홀 (인수증 작성후 배부)

교구는 교구간사, 부서는 부서사역자를 통해 배부



* 금주 기도원 집회는 공휴일 관계로 쉽니다

2023년, 제2차 학습, 세례식(성인) 안내

대상: 학습(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세례(학습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신청: 선교관 1층 사무국, 온라인 접수(QR코드),

교구 및 부서 담당 교역자

신청마감: 10월 8일(주일)까지

문의: 권혁근 목사(010-8615-9577)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과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사용 설명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성도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이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바라기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이 청명한 계절에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경통독 힘을 내어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한 통독순에 혹시 뒤처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서로 격려해 주시고, 형식적인 읽기에 그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말씀 읽는 시간을 통해 생명력 있는 주님과 교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짜	시 간	학습 교육/담당자	장 소	세례, 입교 교육/담당자	장 소
10월 8일 (주일)	12:10~12:50	성경, 하나님, 인간 (정석훈 목사)	제1교육관 602호(6층)	성경, 하나님, 사탄 (문진호 목사)	제1교육관 501호(5층)
10월 15일 (주일)		죄, 예수님, 예배 (정석훈 목사)		구원, 성령, 교회 (문진호 목사)	
10월 22일 (주일)		성도의 생활, 신조 (정석훈 목사)		종말, 재림, 성례 (문진호 목사)	
	추후공지	문답(교구별, 부서별 장소)			
10월 29일 (주일)	주일찬양예배	학습 · 세례식(찬양예배, 본당) 14시 50분까지 본당 입실 바람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리딩지저스 컨퍼런스 2023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교회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성경통독 "리딩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충현교회 성경통독 모델을 한국 교회에 소개하였고, 한국교회에 교단을 초월하여 성경통독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를 통해 한국교회에 확장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를 확인하는 자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더욱 깊은 성경통독으로 향하는 자리인 리딩지저스 컨퍼런스2023에 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3. 10. 17. (화) 09:30 - 15:30 장소 충현교회

1부 사회 권혁민 교수 (리딩지저스 발행인)

오프닝
권혁민 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리딩지저스 사역의 의미와 가치
피터 릴백 총장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언약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조나단 김순 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사도행전의 끝맺음(행 28:30-31)에 나타난 그리스도 중심성
한규삼 담임목사 (충현교회)

성경과 성령: 주님과 밀착
권성수 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2부 사회 김은수 목사 (리딩지저스 미니스트리 공동대표)

그리스도 중심 묵상과 기도
강명옥 박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리딩지저스 소개와 현황
박동진 목사 (충현교회)

포럼
서울홍성교회 (서경철 담임목사)
강변교회 (이수환 담임목사)
대구삼덕교회 (강영룡 담임목사)

주최
충현교회 /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
리딩지저스 미니스트리

대상
충현교회 모든 성도

등록 및 신청 (점심제공)



온라인: 홈페이지 및 QR코드 /
오프라인: 각 교구 간사 또는
부서 담당 교역자

등록마감
10월 8일(주일)까지

문의
김승래 목사(010-5526-1324)
최병일 안수집사(010-7534-2952)

지난 주일(9월 24일) 설교 되새기기

‘예배’와 ‘윤리’의 연결점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12:1~2)



등산을 가면 등산로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안내판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가면 되는지 안내해주는 안내판을 따라서 산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로마서의 세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 선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세 안내판을 따라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라는 안내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로마서를 읽는다는 말은 구원을 중심으로 믿음과 의 그리고 죄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참으로 광대한 복음의 진면모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빚진 자라고 시인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두 번째 안내판은 바로 선교입니다. 바로 복음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안내판입니다.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의 깊은 곳까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복음을 더 잘 알 때 복음이 머물지 않고 확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선교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온전한 복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끓어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까지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근원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속량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의 능력의 범위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의 광대하심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에 우주적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 로마서를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세 번째 안내판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의 내용도 배우고 교리도 듣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까?”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의 원리 즉 교리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6장인데 처음 3장은 원리를 가르치고 다음 3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과 원리를 다루고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룹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부분은 무엇이 핵심인가 하는 원리로부터 비롯됩니다.

뉴욕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특히 잠수와 경호 쪽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귀국할 때 꼭 제게 와서 기도를 받곤 했습니다. 건장한 이들이 기도를 받으면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한국 돌아가면 치열하게 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반갑고 좋지만 걱정도 되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 해주곤 했습니다. “치열하게 살지만 그 안에서 은혜와 생명을 잃지 마세요.”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통해서 삶의 경쟁력을 높여서 돌아가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새 사람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

지만 반드시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과 닮은꼴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경쟁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쟁력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서도 중심에 거룩함을 지키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면서 사는 일에 경쟁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암송구절인 로마서 12장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절정이 되고 분기점이 됩니다. 12장 2절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것인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12장 1절을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몸은 우리의 전인격 즉 우리의 전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면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따로 삶 따로 사는 경향을 가질 때가 많은데 우리의 신앙과 삶은 통합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안내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다시 로마서 초반부터 12장 까지 살펴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와 같이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가 삶의 영역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영역에 펼쳐지는 은혜의 역전이 일어나듯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제한 없이 그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로마서를 읽어나가시면 9장에서 11장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 사이에 아멘이 두 번 나오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5절과 11장 36절에 아멘이 등장합니다. 왜 유대인이 죄를 짓고 은혜에서 밀려나 있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결국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왜곡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성도가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이 왜곡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이 놀릴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배가 회복됨으로 삶이 회복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복잡하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누가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인지 헷갈릴 때 예배 자리에 나가면 다시 새 사람으로 삶에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리셋이 필요할 때,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한정된 시간 제한된 공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전 인격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 김상래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담임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This is the Connection
Between 'Worship' and 'Ethics'

(Romans 12:1-2)

Rev. Kyu Sam Han

When you go hiking, you can see a signpost at the entrance before entering the hiking trail. There is no problem if you follow the direction on the signpost as it guides you on which path to take and how to get there. However, if you do not follow the direction, you might easily get lost. To fully understand the world of Romans, you must follow the three directions called the Gospel, the Mission, and the Life of a Christian while reading the book of Romans.

Let's look at the first signpost called 'the Gospel'. It is easy to understand the book of Romans when you read it with the Gospel at its center, which means reading it with faith, righteousness, and sin as the main idea. Paul wanted to present the Gospel in full to the readers of Romans. Even though they had already heard the Gospel and received salvation, he wanted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more in depth. Paul admits that he is not ashamed of the Gospel and that he is a debtor to the Gospel. This is best expressed in Romans 1:16 and 17.

The second signpost is 'the Mission', which says that the Gospel must spread. When Paul went to Rome, he wanted to teach the Gospel in depth. At that time, Paul said he went there as if he was in debt. He knew that the Gospel is so good that it does not stay still but it expands when we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gospel. This is what Paul means the horizon of mission is widening. We must move towards the more complete world of the Gospel. Because of the Gospel within us, we need to grow to the point where the Gospel can spread. Paul's passion for the Gospel is based on the fact that all people have sinned. Romans 3:23-24 say,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In this verses, Paul puts emphasis on the fact that everyone has sinned, and salvation has been given to all. The scope of the redemption reaches everyone. In the name of Jesus I hope you experience how great the gospel is while reading the book of Romans. If you experience the cosmic power of the Gospel, you have read Romans correctly.

The third signpost is the life of a Christian. After we learn the principles and doctrines in the Bible, the next question we should ask is, "How should we live?" Paul's letters are broadly divided into two parts: one which explains God's principles, that is, doctrine, and the other which answers the question, "How should we apply them in our lives?" Ephesians has six chapters, with the first three chapters teaching principles and the next three chapters addressing how we should live. Likewise, Romans follows this pattern. From chapters 1 to 11, it deals with the content and principles of the Gospel, and from chapter 12 onwards, it addresses how we should live. What the book of Romans teaches us about the latter begins with the principles about what the key points are.

While serving in Korean immigrant ministry in New York, students who were studying in the fields of diving and security used to come to me for prayer before returning to Korea. These bulky and sturdy students' confession had in common. That is, they would live their lives to the full extent of their power after they returned to Korea. I would feel pleased with them, but I was also worried for them. So, I used to say like this: "Live your life to the fullest, but stay in the grace and life of God." Thanks to those who went back to Korea after completing their studies in the US, I have seen the image of a new person described in the Bible. This is because they have gained competitiveness in life through their studies abroad. This is similar to the fact that they always have to live with the grace and life while embracing the role of a spiritually new person and living their lives to the fullest in the world. Have you become a new person? We have to remember

that those who have accepted Jesus as their Savior and Lord have become a new person. They will live a competitive life in the kingdom of God, which means living a spiritual life with a newly transformed heart, maintaining holiness, and striving to make this world holy even in the midst of its sinfulness.

Let's look at the memory verse Romans 12:1-2 again: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These verses are the climax and turning point of the entire book of Romans. The latter part of verse 2 is important, which says that we mus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our mind. This essentially means becoming a new person. We cannot discern God's will without becoming a new person. As our hearts begin to renew, we start discerning God's will. To do this, we must do everything according to what is good, pleasing, and perfect in His sight. Verse 1 tells us to offer 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which means dedicating our entire lives to God. It may not be easy, but as we experience God's grace upon grace, we develop a desire to offer 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Then, we have a feeling that this is the right and pleasing thing from God's point of view. We often tend to draw a line between our faith and life, but they must be integrated.

What Paul puts emphasis on in the book of Romans is that if we hope to lead a good life in this world, we must establish worship. When you look at Romans from chapter 1 to 12, it teaches what a proper worship is before telling how to live like this for those who think carefully about how to live. This worship is not limited to a specific time or place, like the Sunday worship service we are attending right now. Instead, it extends into the realm of our daily lives. Just as God's grace spreads out in all areas despite the fact that we all have sinned, those who worship properly will have a good influence in the world without limitation.

When you delve deeply into the book of Romans, you will find it challenging to understand chapters 9 to 11. However, there is a way to gain a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se parts. Look for the word 'Amen', which appears twice between Romans 9 and 11, specifically in Romans 9:5 and 11:36. Even if you may not fully grasp why the Jews sinned, were separated from grace, and will ultimately return, you can simply say 'Amen.' This 'Amen' indicates the acceptance of the truth that all have sinned but that everyone will eventually be reconciled to God according to His plan for salvation. Chapter 12 tells us that the worship is to offer 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Even though we live in a distorted and sinful world, we can overcome this distortion. It also teaches us that our life is restored by restoring worship and crying out to God as Abba Father even when our spirit is overwhelmed. When the principles of this world seem so complicated that we cannot understand them and when we get confused about who has saved and how to live a good life, it tells us that we can once again gain strength as a new person in our lives when we gather in the place of worship. When you need to reset your life and start over, we must put worship first. Worship is not limited to a specific time and place. It is offering your whole self in a holy way that pleases God. Let your entire life be a holy offering to God. I hope both you and I offer our entire beings, our entire lives, as a holy life that pleases God.

제6회 중보기도부 헌신자의 날 기도응답 간증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24~26)

이번에 저희 부부가 중보기도훈련을 받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장손 배서준의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족이 기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된 축복된 시간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배서준 아기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던 장손 배서준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에게 무슨 큰 일이 있을까 상상조차 못하고 동네 소아과에 갔는데 의사는 서준이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며 대학병원에 가라고 소견서를 써 주셨습니다. 급히 신촌 세브란스에 가게 되었고 일단 머리 MRI를 먼저 찍자고 하더니 머리속에 무언가 안 좋은 것이 보이니 CT를 다시 찍고 확실히 보자고 하셨습니다. 결과는? 주여!!~. 그 어린 서준이 머리 속에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다고 하시면서 당장 내일 수술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낙심 중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기억났습니다. 기도로 매달려보자 생각하고 교회에 기도요청을 했습니다.

금요일 집회 시간에 한규삼 담임 목사님께서 전교인에게 우리 아기 서준이의 상태를 이야기 하시면서 모두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우리 서준이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특별히 새로 신설된 중보기도부에서 집중 기도가 진행되는 중에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12시간을 수술했

음에도 모두 제거하지 못했다고 하시며. 문제는 그 종양들이 신경 줄에 매달려서 잘못하면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거하지 못한 30%는 항암치료로 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만이 답이지..를 고백하며 시간 시간마다 기도제목을 중보기도부에 올리며 할머니인 저 역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라서 새벽 제단과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린 아기이고 위중한 상황이라 마음 속에 바위 덩어리가 하나 가득 들어찬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기에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서준이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확신 속에서 항암치료는 계속 되었습니다.

중보기도부와 많은 분들의 기도는 서준이와 우리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어려운 치료의 순간, 순간을 잘 견뎌내 마침내 악성종양으로 부터 자유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서준이가 통증을 견디지 못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몸을 흔들며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지금은 서준이가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네요. 수 많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작고 머리카락도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서준이를 통해서 기도의 역사를 체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빛진 자로 중보기도부 교육을 받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기도로 함께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화 권사 (10교구)



안녕하세요. 10차 중보 기도 사역자 임선희 집사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의 주변에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고 기도 카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경험한 대표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 직장 동료는 외할머니, 친정어머니, 본인을 거친 3대가 자궁 내막암이라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으며 친정 어머니는 암이 재발이 된 상황에서 긴급 기도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긴급 기도 기간, 1달이 지나면 연락을 해주시는데 연락받고 바로 이틀 뒤에 전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재발된 자궁 내막암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가슴이 뭉클하여 가족 같은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친정 어머니에 대한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올해 6월 12일 몇 년간 성대에 존재하던 혹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긴급 기도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1달 뒤 중보 기도가 끝나고 중보기도팀에서 연락을 받았고 바로 며칠 후에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혹이 반으로 줄어 들었다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2번째 긴급 기도 카드를 작성하고 바로 열흘 뒤에 혹이 완전히 없어져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연적으로 성대혹이 없어질 확률은 20%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동료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동료는 충현교회 중보 기도실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체계적으로 중보기도가 운영되고 있음에 놀랐으며 중보 기도팀에 감사했습니다.

2번째 기도 응답의 경우는 전 직장 팀원인데 결혼한지 몇 년도 되지 않아 35세의 젊은 나이에 뇌하수체종양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4가지 호르몬 (남성호르몬 외 3종)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중보 기도 요청을 한 후에 남성호르몬 기능이 회복되었으며 항이노호르몬도 거의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고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안성까지 내려가서 팀원을 만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 경험이 없는 저에게 그런 용기가 생긴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가 왜 응답될까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었으며 중보기도 작성판을 보게 되었는데 하루에 약 30명 정도의 사역자가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기도를 200시간, 한 달이면 800시간, 기도 대상자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에 일어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딸은 아침 7시면 혼자 일어나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찬양대에 가서 찬양하고 성경 필사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교회 나가는 것을 게을리 하자 저희 가족들이 모두 아이를 야단쳤더니 결국 상처받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아이에게 사과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4주전 부터 청년 1부를 스스로 나가게 되었으며 청년 1부 수련회도 참석했습니다. 10년 만에 자기 발걸음으로 교회를 찾아온 것을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중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되고 저의 영혼이 맑아지고 정결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쌓은 작은 주춧돌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은총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사역을 통해 나에게 비전을 보여 주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부족하지만 제가 드리는 기도가 모든 분들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선희 집사



캄보디아 2팀 단기선교 후기

- 캄보디아 프루샤트, 8월 7일(월) ~ 8월 14일(월) -



개인적으로는 5년만에 단기선교에 동참하여 이번 장로 단기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또한 캄보디아에는 2015년에 고등부 학생들이랑 단기선교팀을 구성하여 가본 이후에 처음이었으니 아주 오랜만에 참여하게 되었다. 방문했던 교회에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있었으나 코로나 기간 중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곳곳에 미쳐서 회복되고 있음을 느꼈으며 특히 간니까 목사님의 글로리교회와 반나쑈지에 목사님의 롤리압교회를 통하여 사역자의 열정이 크고, 복음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으며 많은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미래가 밝음을 느꼈다. 주일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 반 동안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동의 물결이 교회 안에 가득함을 느꼈다. 그 동안 우리교회는 캄보디아에 약 470개팀, 4,100명 이상의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여 선교대상국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 사역자나 협력 선교사를 세우지 못한 실정이었으나 최근 교회는 위 두 목사님을 현지인 사역자로 세워주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기도모임을 만들고 단기선교도 구성하여 많은 성도들이 단기선교에 동참하기를 소망한다.

홍금성 장로

이번 캄보디아 2팀의 선교 보고를 토대로 캄보디아에도 현지인 사역자 2분이 2023.1.1.부로 선정되었습니다. 간니까 목사님(글로리교회, 프놈펜지역)과 반나쑈지에 목사님(롤리압교회, 프루샤트지역)입니다. 앞으로 몬돌끼리 지역 등에도 현지인 사역자들이 세워지기를 희망합니다. 현지인 사역자에 의한 복음 전파 지원 및 단기선교를 통한 협력 사역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원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헌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홍순길 장로

캄보디아 선교 기도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선교현장으로 보내 주시고 캄보디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존귀, 영광 올려 드립니다. 삶의 분주함과 영적 게으름으로 인하여 선교지와 그 영혼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캄보디아 선교(5인의 장로팀)팀을 구성하게 하시고 7박 8일의 선교일정을 위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프놈펜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를 시작으로 몬돌끼리, 프루샤트, 캄퐁츠낭의 선교현장을 방문케 하시고 현지인 사역자들의 헌신과 충성의 현장을 목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몬돌끼리 지역의 여호수아 아카데미 사역지와 김영화 선교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프놈펜의 젊은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김진욱 선교사와 박양희, 권은아 선교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글로리 교회의 간니까목사, 롤리압 교회의 쑈지에 목사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현지인 사역자를 통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무익한 종으로 쓰임 받고 있는 선교지의 귀한 선교사들과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의 열정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해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가족 환영회 후기

2023년 4차 새가족 환영회가 9월 17일, 베다니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56명의 새가족이 참여하였으며, 한규삼 담임목사님의 귀한 권면의 말씀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현교회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섬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월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여 충현교회를 다닌지 5개월 된 배운지입니다. 저는 동료 선생님이 충현교회 성도이셔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로 먼저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온라인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금요집회, 주일예배를 위해 현장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서 등록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충현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기본과정 4주와 양육과정 8주의 시간을 마치게 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변화를 깊이 느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늘 모든 일을 혼자서 해야 하고, 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감당해내야 하는 부담감에 많이 매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조금이라도 얹어질 때면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을 했고, 며칠 동안은 허무하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큰 수술을 앞두고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인정하지 않고, 전전긍긍하며 나의 의지대로 나아가려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면서부터 이제는 모든 일에 있어 계획은 하되, 그것을 이루려 억지로 애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걱정도 불안감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의 주일예배 중 한규삼 담임목사님의 잠언 16장 1절-9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영역은 마음의 경영, 자기의 길 계획, 준비하기...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일을 꿈꾸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일의 구체화 되는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길을 계획 하지만 그 길의 한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세워진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사람이 결정을 하지만 모든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이끄심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내 의지대로 내 욕심이 드러나 이루려 하는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말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걸어가길 간구합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 맡김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분명 그 길에서 힘들고, 낙담하고, 절망할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번 부흥회 때 요셉을 통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간다면,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기에 어떠한 걱정,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이해하지 못하는 저의 부족함에 낮이 뜨거워져 어린이 성경책을 구매했습니다. 이제 막 하나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한 아장아장 느린 걸음이지만, 보다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새가족 성도 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처음부터 하나씩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저의 믿음이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지 성도





2024년 위원장 및 지도 교역자 명단

2024년을 섬길 위원장과 지도교역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회, 위원장, 인사위원회, 노회총대, 교구장

< 위원장 >

당회서기	양효민 장로	당회부서기	이상배 장로	예배위원장	임광신 장로	찬양위원장	김상열 장로
교육위원장	홍순길 장로	차세대위원장	남중호 장로	세움위원장	변창대 장로	전도위원장	김영환 장로
선교위원장	지규성 장로	봉사위원장	박원화 장로	기획위원장	정인욱 장로	교구위원장	김태식 장로
행정위원장	이창희 장로	재정위원장	백봉선 장로	건축위원장	김종훈 장로	새가족위원장	홍금성 장로
감사위원장	이흥기 장로						

< 인사위원회 >

위원: 오순도 장로, 양기수 장로, 김성호 장로, 이상복 장로, 지규성 장로, 이창희 장로, 양효민 장로, 이상배 장로, 정인욱 장로

< 노회총대 >

이창희 장로, 양효민 장로, 이상배 장로, 정인욱 장로

< 교구장 >

1교구장	윤순규 장로	4교구장	박건일 장로	7교구장	최규옥 장로	10교구장	안연식 장로
2교구장	문영규 장로	5교구장	김영주 장로	8교구장	박명근 장로	11교구장	박성철 장로
3교구장	김희동 장로	6교구장	이경환 장로	9교구장	김태식 장로	12교구장	박노익 장로

*시행일 : 2023. 9. 25 부

○ 위원회 및 교구 지도교역자

< 위원회 >

예배위원회	권혁근 목사	찬양위원회	박요셉 목사	교육위원회	임대영 목사
차세대위원회	김상래 목사	세움위원회	김유석 목사, 김승래 목사	전도위원회	박성덕 목사
선교위원회	강성은 목사	봉사위원회	권순동 목사	교구위원회	박동진 목사
행정위원회	문진호 목사	새가족위원회	김주한 목사		

< 교구 >

1교구	이기영 목사	7교구	권혁근 목사
2교구	박동진 목사	8교구	정석훈 목사
3교구	문진호 목사	9교구	윤성복 목사(2023. 11. 30까지)
4교구	위안복 목사	10교구	전영재 목사
5교구	윤준식 목사	11교구	김주한 목사
6교구	박영환 목사	12교구	이성환 목사

*시행일 : 2023. 9. 25 부

국민 미션 포럼 2023 <희망터치 : 챗GPT와 다음세대>

일시: 2023년 10월 5일(목) 09:00~16:00 장소: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 컨벤션홀
패널토론: 한규삼 담임목사님 주최: 사공과 섬김

제8회 동서울노회 통일선교 학교

북한선교 열매의 감사함을 품고 통일선교의 두번째 발걸음을 가고자 합니다. 제기 통일선교 사역자우려 기초과정을 수료하신 분을 대상으로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충현 성도님들의 통일선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이번 심화과정을 통하여 불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금주 단기선교 및 동역교회 파송

전도지역		팀장 및 파송인원	기간
베트남 2팀	베트남 하노이	김종선 권사 외 7명	10월 3일(화) ~ 10월 9일(월)
12교구 1팀	제주 제일 중국인교회	이석종 안수집사 외 9명	10월 6일(금) ~ 10월 9일(월)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10/4	수요 I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고전 10:1-6) 신경철 목사	임대영	이해숙
10/6	금요일집회	로마서 정리 (롬 1-5장) 한규삼 담임목사	박요셉	
10/8	주일 I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엡 3:5-9) 한규삼 담임목사	이다현	허만선
	주일 II		문진호	김영환
	주일 III		박영환	현준봉
	주일찬양	율법의 역할 (갈 3:15-25) 전영재 목사	김유석	류기제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2 (월)	문진호/권하연	왕상 11:26-43	전교인
3 (화)	위안복/안연식	왕상 12:1-11	전교인
4 (수)	박성덕/김용숙	왕상 12:12-24	전교인
5 (목)	윤성복/정유채	왕상 12:25-33	9교구
6 (금)	이기영/김영목	왕상 13:1-10	1교구
7 (토)	김상래/김상래	왕상 13:11-19	전교인
8 (주)	강성은/강성은	왕상 13:20-34	전교인

한 규 삼 담임목사

■ 목차

임창식 전도위원	신광철 충훈도사신사	이상석 행정위원	오순도 소방부장	양기수 충훈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교구위원장	이성섭 행정위원	이보신 새기족위원장	이상해 기도원부장	김성호 인사위원
조준민 봉사위원	이상복 인사위원	지구성 선교위원장	김영주 5교구장	최민식 합월배마차장(평화)
김명성 차량관리부장	이창희 행정위원장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홍기 감사위원	송환천 충훈복지재단이사	조윤준 선교위원	최현규 봉사위원	남승용 충훈도사신사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세례위원장	허만선 충훈교회장로위원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충훈도사신사

■ 여전도사

이흥기 송한천 조윤준 최현구 남용승
감사위원장 총현복지재단이사 선교위원 봉사위원

김영화 변차대 허만성 안여식 현준봉

■ 교육목사

양호민 박원화 이상배 박명근 김종훈
당회서기 봉사위원장 당회부서기 8교구장 건축위원장

■ 교육전도

송영상 **전성욱** **박전일** **배종락** **김철남**
 성경통독부장 아멘찬양대장 4교구장 충현동산이사 예루살렘찬양대장

■ 협력선교사

3교구장 새가족위원장 외선부장 변엘찬양대장 교육위원장

적이호 나주홍 오소그 김사연 신정환

■ 현지|사역자

이양선 박성철 김열환 김세종 한홍연

■ 지원선교사

7교구장 제자교육훈련부장 평생대학원장 안내부장 2교구장

김충식 신철우 이병익 박기인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9:00	본당
	II 오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본당
수요예배	오전 11:00(본당)	
금요일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갈릴리홀

* 금주 기도회 집회는 쉽니다.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